

0. 세미나를 열며

1. 자기소개

이렇게 모이게 되어서 정말 반갑고 기뻐요! 다들 아직은 어색하죠? 그래도 소규모의, 알찬(?) 세미나인만큼 한 달 동안 함께할 얼굴들을 잔잔히 살펴보아요. 그리고 자기에 대해 간단한 소개를 하는 시간을 가져 볼까요?

어디까지나 참고 사항이에요. 편하게, 자유롭게 하고 싶은 말을 나눠요!

- 1) 이름, 별명, 활동명, 잊어버
- 2) 많이 좋아하는 음식과 언 먹는 / 못 먹는 음식
- 3) 좋아하는 책이나 영화, 또는 음악 하나
- 4) 자신에게 좌우명, 혹은 그 비스무리한 게 있다면?
- 5) 왜 세미나를 하게 되었는가
- 6) ★가장 중요★ 오늘 세미나 끝나고, 뒤돌아 때 먹고 싶은 것
- 7) 관심사, 고민 거리.
- 8) 이 외에도, 하고 싶은 말들.

2. 생활 나누기

방학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그리고 보니 1월 1일이 시작하고 딱 일주일 지났네요. 일주일 간 어떻게 지냈어요? 뭐가 좋았고 뭐가 또 싫었나요? 무슨 고민을 하셨나요? 뭐든 상관없으니, 본인이 나눌 수 있는 만큼 편하게 자신의 일상을 공유해보아요. 앞으로의 생활 나누기로 세미나의 한 주를 여는 건 다들 어떻게들 생각하시나요? 의견도 나눠보아요!

3. 세미나를 시작하기 전, 약속 몇 가지

하나. 발제문, 심화 리딩 등을 읽거나 토론을 하다보면 잘 모르겠거나 이해가 안 되는 개념들이 종종 나올 수 있어요. 그럴 때는 누군가의 말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편하게 손 번쩍 들고 그게 뭐냐고 물어 보여요. 질문을 받은 사람들은 최대한 쉽게 쉽게 대답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아요. 누군가가 한 답변에서 부연하고 싶은 게 있으면 그것도 편하게 이야기해보도록 해요.

둘. 우리가 읽고 토론할 글들은 결국에는 누군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길을 드러내는, 하나의 '해석'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요. 글을 읽다보면, 아무리 훌륭한 이론가의 글이라도 정말 도저히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럴 때면 세미나 자리에 들고 와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어보아요. 그러면 세미나도 더욱 풍성해질 수 있을 거고, 서로의 지적 성장에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셋. 내집이다-생각하고 절대 부담 가지지 말고, 편하게 이야기를 나누어요. 발제문을, 또는 세미나준비팀의 영혼을-활활-활어도-좋아요 세미나의 주제와 이어지는 흥미로운 텍스트, 그림, 음악, 영화, 웹툰, 뭐든 지 등등이 있다면 가지고 와서 공유해주세요. 정말 큰 복을 받으실 거예요. 혹시 정말 이 얘기는 꼭 나누고 싶거나, 발제를 해보고 싶은 주제가 있다면 기획단에게 미리 연결을 주시고 발제를 준비해보세요. 어 분도 역시 큰 복을 받으실 거예요. 한 문장, 이야기 한 토막이라도 이야기 해보고 싶은 게 있으면 같이 꼭 나누어 보여요.

그리고 우리 모두 이 세미나가 자기의 경험을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가 되도록 노력해요. 세미나 내부에서 나왔던 이야기들을 외부에서 함부로 소비하거나 이야기하지 않도록 해요.

넷. 가장 중요한 부분. 혹시 세미나를 하면서 불편한 부분이 생긴다면, 절대 혼자서 식이지 말고 세미나 기획단, 혹은 세미나 자리에서 모두와 함께 꼭 같이 이야기 해보도록 해요. 결국 이 세미나도 모두가 잘 좀 살아보자고 하는 거니까요. 세미나로 누군가가 소모 되어서는 절대 안 돼요. 누군가 치치거나, 소모되거나, 불편해지는 세미나라면 세미나를-절대-두-번-안-하느니만 못 하니까요.

4. 정체성 탐색하기 : "나는 OO이다." 써보기.

자신을 상상하거나, 설명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정체성 다섯 가지를 "범주화"시켜 써 보아요. 만약 우선순위를 설정할 수 있다면 순위도 함께 매겨 보아요.

예) 나는 남자/여자다. 나는 사람이다. 나는 학생이다. 나는 여대생이다. 나는 우리 엄마야매 딸이다. 나는 이성애자다. 나는 동성애자다. 나는 성소수자다. 나는 한국인이다. 나는 연대생이다. 나는 장애인이다. 나는 중산층이다. 나는 -.

다 써서, 세미나가 후반부까지 고이 간직해주세요 :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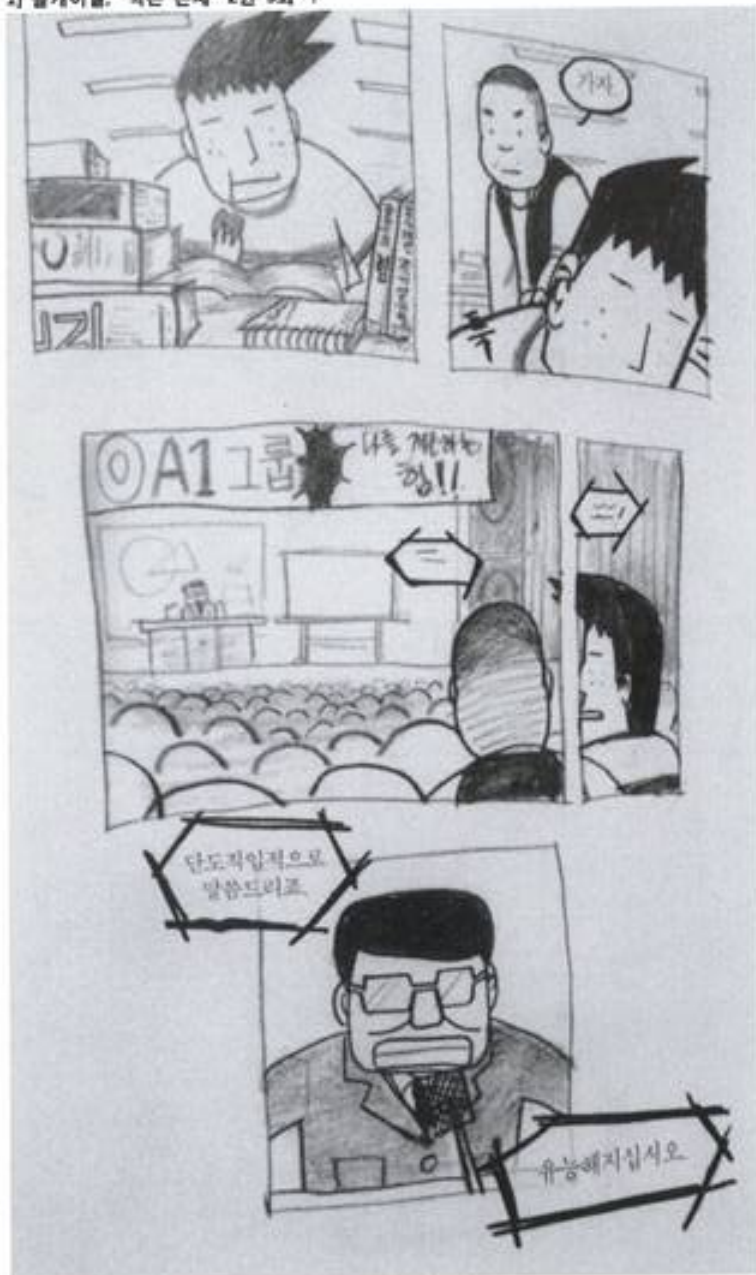
고민 하나. 정말, 우리 모두는 자유롭고 평등할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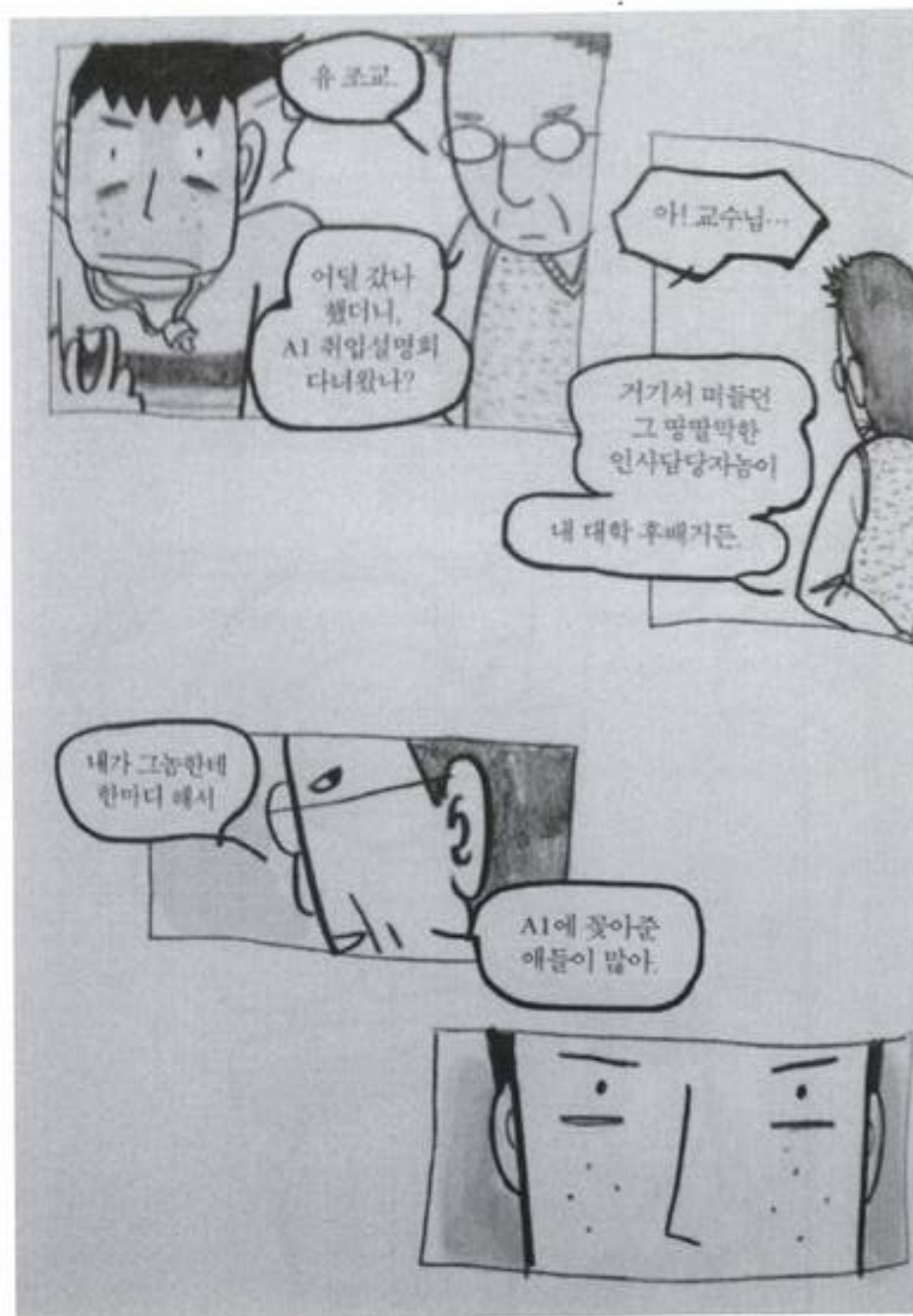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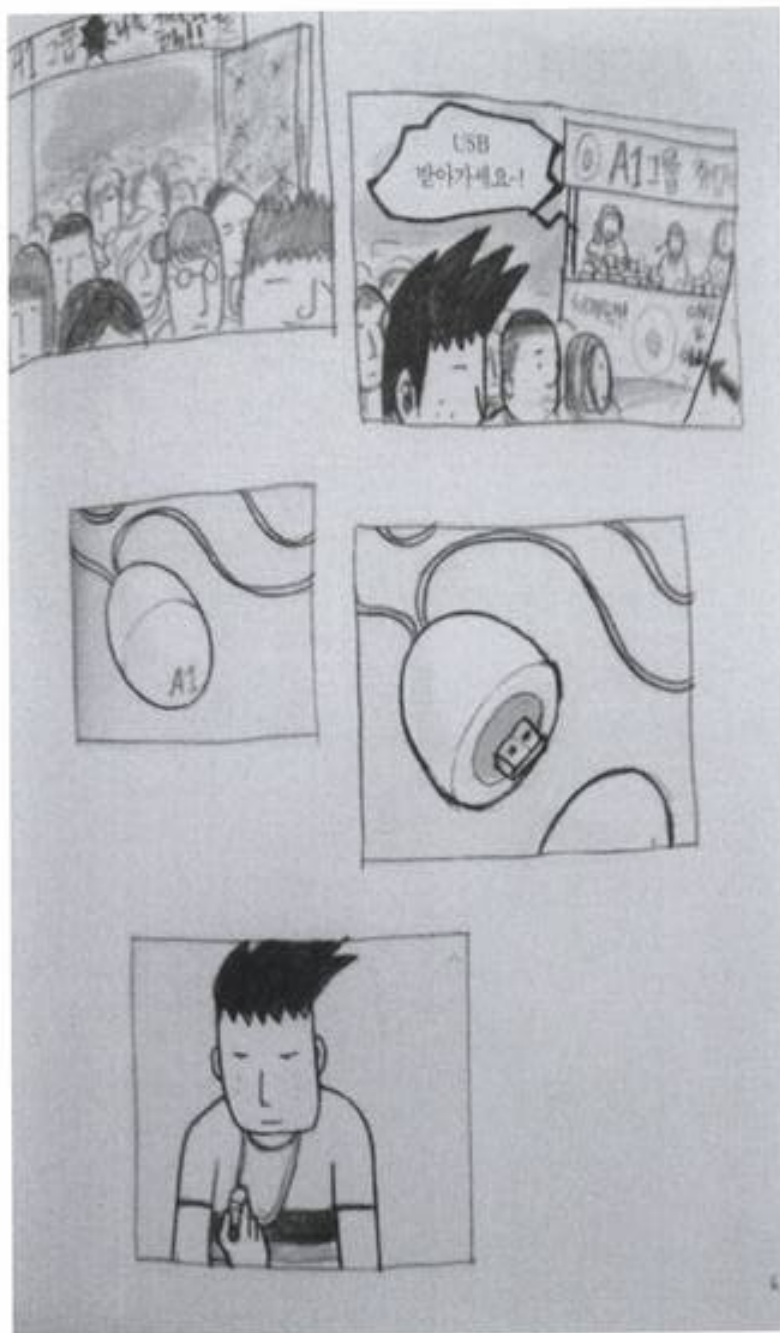
임옥희, (2010). 재식주의자 벨라이어 - 폭력의 시대, 타자와 공존하기. p.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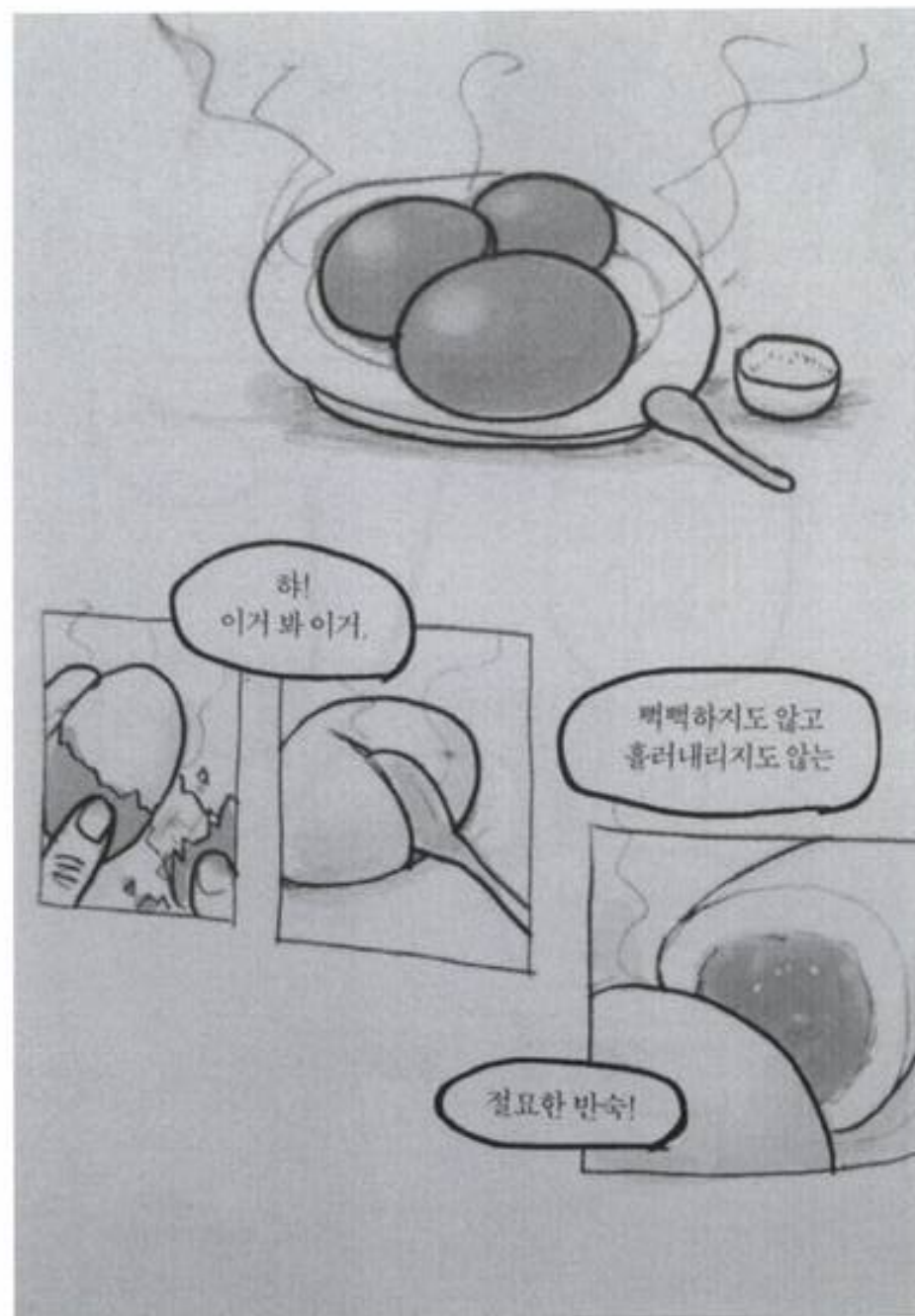
"정부는 전대 문제뿐만 아니라 한국사회 전반이 이제 자유롭고 평등하게 살고 있다는 환상을 유포하고 있다. 모든 것은 개인의 역량과 개인의 자기하기 나름인 자유로운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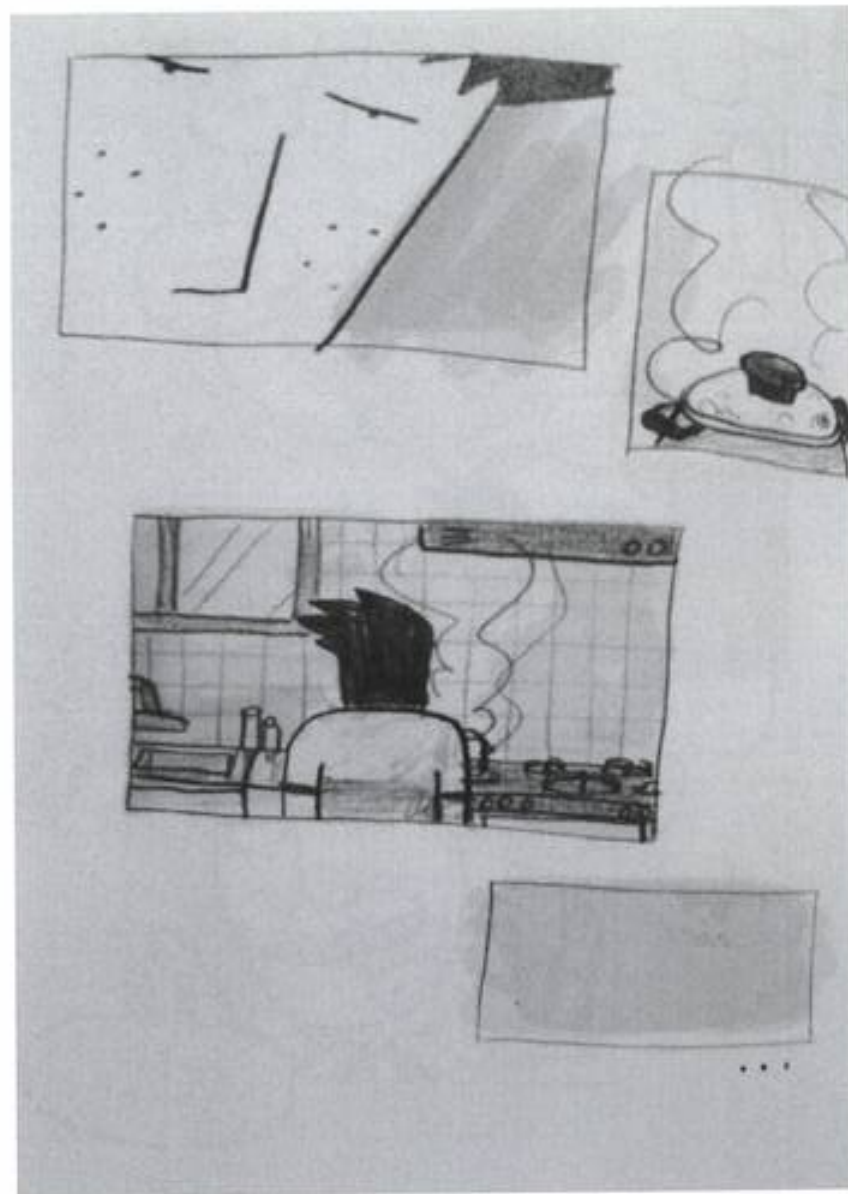
많은 사람들, 특히 어르신들이 세상 참 살기 좋아졌다고 말합니다. 예전보다 세상이 훨씬 자유롭고, 훨씬 평등해졌다고. 양반 똥을 따로 있던 옛날과는 다르게 노력만 하면 누구나 꿈을 이루고, 성공할 수 있다고요. 그러나 임옥희가 지적한 것처럼 이것이 '환상'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들은 아직도 어디에서, 누군가는 가난한 이가, 여성이, 장애인이, 성소수자가 명백한 차별과 배제를 마주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자유와 평등이 주어지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환상'이 오히려 지금 존재하고 있는 불평등의 양상을 가리거나, 불평등에 대한 문제제기 자체를 어렵게 만든다고 비판합니다.

여러분은 이 논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토록 현격한 입장 차이는 어떻게 생겨난 걸까요? 여러분을 둘러싼 세계는, 그리고 그 세계 위에서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상황들은 충분히 자유롭고 평등한가요? 혹은 그렇지 못 한가요? 우리가 속해있는 세계와 우리의 정체성은 어떤 방식으로 관계를 맺고,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칠까요? 자유롭게 이야기 나누어 보여요.









이 사람은 유조교입니다. 밤낮 가리지 않고 자기 계발서를 읽으며, 성공을 위해 열심히 공부하는 대학원생입니다. '노치네'인 누나가 자기의 인맥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좋은 남편감을 만들길 바라는, 열심히 노력하면 작고 예고많은 예만도 사귄 수 있고 성공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평범한 그런 대학생이지요. 어느 날, 유조교는 교수일가가 먹을 계란을 살게 됩니다. 교수의 딸감을 삼으며 그는 어떤 기분을 느꼈을까요?

혹시, 우리에게도 이것과 비슷한 경험이 있지는 않나요?

고민 들. 학내는 얼마나 자유롭고 평등할까?

[읽을거리 2] 나누기&함. "우리들의 언어로 풀어내는 <살타레>1)",
2009년 연세대학교 여성주의 소모임 네트워크 자료집 中

1.

"사회과학대 0반에 배정되었습니다^^"

합격 소식을 듣고도 대학생이 되었다는 데 실감이 나지 않아 얼떨떨한 때쯤, 내가 속한 '반' 선배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오빠'는 진절헌 목소리로 새내기 오리엔테이션 날짜와 시간을 안내해 주었지요. 그제야, 이게 대학생이구나. 실감했어요.

친구들과 선배들을 만나는 오토 날. 처음 만난 동기들과 이야기를 하다 문득 선배들이 모여있는 쪽을 보게 됐어요. YONSEI가 큼직하게 박힌 피켓을 들고 있는 선배들은 죄다 남자였죠. 여기는 여자 동기들이 더 많은데, "왜 여자 선배들은 없어요?" 혼잣말 같은 내 질문에 한 오빠가 여전히 진절헌 목소리로 대답해 주었습니다. "여자들은 이기적이어서 반활동 잘 안해." 나는 이기적인 여자가 되자 말아야지, 라고 생각했어요.

나오지 않는 큰 목소리를 쥐어짜내어야 하는 FM도, 들어가지 않는 술을 억지로 마셔야 하는 선배들과의 술자리도, 피곤하다고 먼저 집에 갈 수도 없는 밤들도 고역이었지만, 이런 게 대학생살이라는 말에 그런 가보다 할 수 밖에 없었어요.

2.

나는 1학년 때 눈에 띄지 않는 아이였다. 키도 작고, 톱톱하고, 언경까지 쓴, 예쁘지도 않은 여자 새내기. 관심 받을 일이 별로 없었다. 그렇다고 내가 말을 잘 하는 것도 아니고, 목소리도 큰 편이 아니라서 시끄러운 고깃집이며 술집에 들어가서 대화를 하기에 그렇게 적합한 사람도 아니었다. OT에서 나와 누군가의 대화는 항상, '이름이 뭐예요?', '어디 살아요?' 정도에서 끝나서 그 이후로는 서로 어색해하며 눈물 못 마주했던 기억으로 점철되어 있다.

그래도 나는 나대로 반에서 할 수 있는 활동이 있을 거라고 굳게 믿고 싶었다. FM을 제대로 해낸 적이 없어도, 통학하느라 술도 마음껏 못 마시고 집에 알뜰 들어가야 해도, 반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오가는 친구들의 진지한 고민을 들어주는 그런 역할 정도는 할 수 있을 줄 알았다. 그래서 학교에 있는 동안 기나긴 공강 시간을 반방에서 보내고, 반클럽에 하루에도 몇 번씩 들어가고, '공식'행사들에 빠지지 않고 참여하려고 우연히도 노력했지만 결국 농담처럼 지나가는 술자리 영웅담이나(주로 어찌 누가 취해서 무슨 부끄러운 일까지 해버렸다는 등), 누구와 누군가를 억지로 묶으려는 과도한 스캔들 퍼뜨리거나, 여학생의 외모에 대한 은근한 점수 매기기 없이 반 활동은 불가능한 것이며 여기에 할 수 없는 나는 그대로 여욱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다.

나는 이러한 주류 반문화에 할 수 없는 데에 대해서 천만가지 이유라도 달 수 있었지만 그걸 입밖으로 내는 순간 그 많은 반 사람들을 가운데에서 나만 괜히 불평하는 것처럼 보일까봐 아무 말도 하지 못 했다. 그저 내가 조금 더 노력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반방에 더 열심히 갔고, 집에 '오늘 진짜 딱 하루만 늦게 들어갈게요' 빌면서 뒤돌이켜 남곤 했다. 그래도 내가 별로 속깊은 이야기를 나누지 못한 것은 변함이 없었다. 나는 별작으로 술을 별작별작 마시는 것도, 목소리 갈라질 때까지 FM이며 용원을 하는 것도 여전히 힘들고 어색했다. 누군가는 나의 외모에 대해서도 예외 없이 평가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 때면 몸서리치게 싫기도 했다.

[읽을거리 3] 2011, 세미나 천하제일하소연대회 中

"악, 선배들이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OO랑, XX랑, 남자애들 둘 술 마시게 시키면서 게이сят! 게이сят! 이러고 깔깔거리는데 그냥 되게 기분 상하고 수치스럽기도 하고, 그런 거 있죠 내가 게이니까, 나는 그냥 남들 보기에는 평범하지 않을 수 있어도... 그냥 남들처럼 누군가를 좋아하는 것 뿐인데, 그게 그렇게 재들은 웃을 일인가 싶고 그 날 집에 가서 잠을 못 잤어요."

"과에 되게 이른 애가 있었어요 여자, 그러니까 이성애자 여자인 내가 봐도 이쁜, 착하고 목소리도 낮고, 이러면 연되는데 호호 개만 보면 막 이쁘니까 나도 기분이 좋아지고 부럽기도하고 해-하기도 했죠. 과방에서 남자 선배들이 OO 너무 이쁘다, 여신급은 아니지만 요정급 요정요정 이러길래 나도 평소애 되게 좋아하고, 전해지고 싶고 아했던 애니까, 그리고 그때는 그런 거에 별 문제된다는 생각없이 "맛있어요 OO 빵어플까. 진짜 이쁘증-"아랬더니 갑자기 어떤 남자선배가 비웃-하듯 웃으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개가 그렇게 이뻐? 그렇게 이쁘면 OOOO(성소수자 동아리)가여겠네" 그 때 진짜 뭐가 아니다 싶고, 뻑치는 거죠. 아니 저들은 아무렇지 않게 여자 얼굴이 어떻게 가슴이 어떻게 그러면서 나는 같은 여자끼리 우와 이쁘다도 못 해? 그리고 여자 이쁜 여자는 다 레즈야?"

"저 같은 비여신, 반여신, 안여신은 사실 여신여신 거리는 거 자체가 좀 서글퍼요. 사실 제 눈에도 이쁜 사람은 이쁘고, 잘 생긴 사람은 잘 생겼어요. 대상화라는 건 사실 불가피한 일이라고도 생각해요. 우리가 자동차! 사람! 토끼! 방화놀! 이런 식으로 범주화하고 구분하면서 세상을 지각하고 인식하는 방식이. 여확 피 다 대상화잖아요. 사람! 잘생긴 사람! 이쁜 사람! 이것도 어떤 성적인 혐의가 붙기는 하지만 이것 역시 세상과 사물을 인지하고 지각하는 방식이거고, 이거 자체를 어떻게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대상화 자체가 없어져야하는 거, 나쁜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이쁘다, 핵시하다, 근육찐다, 이런 건 저들끼리 생각하고 말것이지 왜 과방에서 술자리에서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건가요. 저들이 무슨 뭐라도 되는 마냥. 사실 그런 얘기들은 마초 남자들과 마초 여자들이 정말 당당하게 이야기 하잖아요. 거리낌없이. 아니, 저가 뭐라고 진짜. 저는 오히려 대상화 그 자체, 그리고 누군가를 대상화하는 욕망 그 자체보다는 그 대상화와 욕망을 다루는 방식이 더 문제가 된다고 생각해요. 사실 조용히 저 혼자 "해, 향숙이 이쁘다." 생각 하고만 말면 누가 뭐라 그래요 누가."

"저는 성별관계 만성질환자인데요. 이게 의학적으로는 기능적 장애기도 하고, 저도 사회적 구분, 제도적 구분이란건 상관없이 제 스스로를 '장애인'이라고 정체화하기도 해요. 어떤 장애인들은 그게 무슨 장애나고 싫어하기도 하는데 여튼, (중략) 근데 막, 술 마시면서 어떤 애가 술게임에서 지니까 "병신-병신-병신- 네 발로 기어라- 두 발로 기어라-" 이런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근데 듣는 병신은 그게 정말 서럽더라니까요."

그리고 나중에 일어날 때 되어서야 알았는데 다리에 고정 장치 끼운 분이 바로 우리 뒷테이블에 계시던 거예요. 진짜 순간 정신이 멍해지는 느낌? 마음이 새하드라구요. 저 같은 경우에는 외형적으로 두드러지는 장애는 없으니까, 사실 덜 눈짓받이기도 하고 덜 대상화당하기도 하는데, 물론 술 못 먹고 땀땀대면 뒤에서 꼭 저런 뽐뽐이로 왜 대학을 와? 이런 얘들은 꼭 있긴 했지만요. 진짜 외형적으로, 신체적으로, 혹은 되게 기능적 장애가 가시화되는 방식으로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정말 힘들겠구나. 아프겠구나. 그런 느낌..."

"후배들이 전해지면 막 07777 그 때 태어난 사람도 대학을 다니는군요! 이러는 거 완전 막 서글프고요... 꼭 조모임하면 진짜 오빠가 제일 나이 많으니까 조모임하시면 되겠네요 께하하 경험도 제일 많으실 거 같아요 맞아맞아 우와 똑똑 조정 결정 자꾸 이러는데 그거 정말 서글퍼요. 근데 가만보니 이런 남자 여자 할 것없이 고학번이면 으레 겪는 일이더라고요. 근데 또 조정정도는 할 수 있는데 고학번 오빠 조정이라

1) 살타레는 2009년에 활동했던 사회대 여성주의 소모임입니다.

고 또 애들이 일 안 하고, 떠남기고.”

인용된 글은 2011년, 학회에서 열었던 소규모의 세미나 전례제일하소연대회의 후기 기록물입니다. 학내가 결코 수평적이고 군질적이지 않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만나 음식과 목욕을 하며 수다를 떠는 자리였어요. 우리도 이런 하소연 대회 한 번 해볼까요?

고민 셋. 여성주의 - 배제를 경험하는 타자, 소수자를 바라보는 시선

[읽을거리 4] 정희진, 『페미니즘의 도전』, 교양인, 2013.

1. 페미니즘은 그렇게 거창하거나 '무서운' 것이 아니다. 이제까지 잘 몰라지 않았던 여성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보자는 것이다. '다른 목소리'는 혼란이 아니라 다양성과 창조력의 원천이다. 사람들도 소품종 대량 생산 사회보다 다품종 소량 생산 사회에서 살고 싶어 하지 않는다.

초등학교 교실에서 실제 있었던 일이다. 5학년 남자 어린이가 볼 듯 없어. 도레 여자 아이들에게 말했다. "너희들, 하느님이 나는 진흙으로 직접 만드셨고, 여자는 내 갈비뼈로 만든 거 알아?" 그러자 두 명의 여자 아이들 말이 걸작이다. "그래 네 말이 맞아. 근데 누가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니?". "그러니까, 너는 질그릇이고 나는 본 차이나(Bone China)네!" 여성주의는 남자 어린이의 말에 틀렸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 여자 어린이들의 재치 있는 대응대로, 다른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여성주의는 그러한 '다른 목소리'가 세상을 풍요롭게 만들고, 여성도 남성도 성장시킨다고 믿는다. (75)

2. 'OO의 관점'은 수많은 타자들의 '다른 목소리' 중 하나이다. '다른 목소리'는 우리 인식의 지평을 넓혀주고 풍요롭게 해주며 자기중심주의를 들여보게 한다. 또한 모든 사람은 '다른 목소리'의 잠재적 주인공이다. 이것이 내가 생각하는 여성주의다. 여성주의는 양성 평등에 관한 주장이 아니라 사회 정의와 성찰적 지성을 위한 방법론이다. 그러므로 어느 누구도 여성주의를 공부해서 '손해'를 입은 없다. (10)

1. 소수자이자, 차별받는 주제인 '여성'에 주목하던 학문이자 실천이론인 여성주의는 지금도 부단히, 그 활동의 영역을 넓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여성뿐만 아니라 다른 '여성적' 존재, 혹은 여성처럼 취급받는 존재가 겪고 있는 차별과 배제의 양상에도 주목하고 있는 것이지요. 더불어 여성주의는 계급, 경제력, 국적, 인종 등에 따라 여성 내부에서도 존재하는 차이도 유심히 살피기도 합니다. 즉, 여성주의는 차별과 차이에 대한 학문체계이자 실천이론인 것입니다. 때문에 학내에서 일어나는 차별의 양상에 주목하는 총여학생회 세미나 역시 많은 부분 여성학과 여성주의에 빛을 질 수 밖에 없기도 합니다.

한 편으로는 여성 이외의 소수자로 활동의 범주를 넓힌 '여성주의'에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표합니다. "따라서 총여학생회도 함께 두드러 맞고-있는-중- 다양한 소수자에 집중하는 활동과 학문의 이름이 더 이상 '여성'주의일 수 없다는 유의미한 비판도 제기되고 있는 거지요. 이 비판에 대해 또 다른 진영에서는 모든 소수자가 제각기 방식은 달라도, 주류 사회의 주제인 '백인-비장예민-중산층-남성'적 가치에 의해 어떤 식으로든 배제를 겪는다는 사실을 살필 때, 사회적 소수자는 여전히 '여성'처럼 취급되고 있다고 이야기 하기도 합니다. 때문에 소수자를 다루는 예민한 통찰에 '여성주의'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이 아직도 적절하다는 얘기지요. 아예, '전파 어렵다'-정말 아직도 이 논쟁은 끝이 나지 않고 있고요. 새로운 조어가 만들어지지 않았기에, 아직까지는 '여성주의'라는 표현을 훨씬 많이 쓰기도 합니다.

하지만 총여학생회 세미나에서, 세미나 기획팀은 여성주의라는 이름 그 자체의 문제, 또는 여성주의가 다가

야 할 '대상'에 대한 학술적 논쟁보다는 여성주의가 우리에게 가르쳐줄 수 있는 어떤 태도, 시선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사회에 그리고 학내에 존재하고 있는 누군가의 불편함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거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할 때 여성주의적 언어는 현상을 '해석'하는 데 유의미한 도움을 건넬테니까요.

흔히들 여성주의는 N개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상상하거나, 기대하는 방식이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이죠. 사실 저희 기획팀 안에서도 여성주의에 대한 의견은 분분합니다. 세미나를 기획할 때도 누군가는 이 세미나를 여성주의 세미나라고 불렀고, 다른 누군가는 인문학 세미나라고 불렀고, 또 다른 누군가는 사회학적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세미나를 만들고 싶다고 얘기했습니다. 누군가는 이 세미나를 소수자 정치의 일환이라고 표현하더군요. 이렇듯 기획팀 안에서도, 그리고 총여학생회 내부에서도 저마다 이 세미나를 상상하거나 부르는 '이름'은 너무나도 달라요. 하지만 모두가 동의했던 이야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학내와 한국 사회에서 묻혀있었던 누군가의 목소리를 드러낼 수 있는 작업을 해보자, 그리고 그 목소리를 함께 들어보자. 그것을 통해 더 나은 학내 공동체의 모습을, 더 나아가 더 나은 사회의 모습을 상상해보자.

이제 이런 고민들을 더욱 풍성하게 하기위해,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학내에서 공부를 하고, 관계를 맺으며 쫓지 않은 시간을 보냈을 여러분은 무엇을 고민하게 되었나요? 혹시 어떤 일들이 불편하지는 않았나요? 상처를 받지는 않았나요? 어떤 언행이 문제적이라고 생각했나요? 혹은 지나고 나니 누군가는 분명히 불편했을 언행을 했던 적은 없나요?

고민 넷. 학내에는 우리가 오늘 나누었던 이야기들을 더 앞서 고민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성평등 자치규약도, 술을 강요하지 않을 것을 권하는 오티센터 자치규약도, 총여학생회의 존재도 사실 그 노력의 결과물이지요. 하지만 아직 이러한 활동들이 그저 이러한 것이 문제다, 또는 이러한 문제가 있다. 이런 것들은 해서는 안 된다고만 말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그결과는 충분하지 않겠조. 누군가를 불편하게 하거나, 배제하거나, 소외시키는 언행들에 대해 우리는 어떤 식으로 반응할 수 있을까요? 좀 더 구체적이고, 확실한 '꿀팁' 없을까요?

ex) 연서복에게 - 어빠 ㅇ 어빠가 그러니까 여자친구가 없는 거여-ㅇ 아 물론 낭당-ㅇ
(구린 농여게는 구린 방식으로 응수한다?! vs. 구린 농이라고 구리게 응수하면 똑같은 농이여)

미팅에서, 또는 공동체 술자리에서 첫잔은 원샷을 외칠 때, 나는 이게 싫은데. 이걸 저지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동아리방에서 외모 평가를 일삼는 남자선배. 또는 여자 선배의 만행. 어떻게 하면 덜 미움받고, 청적을 만들거나 분위기를 과하게 깨지 않는 방식으로 멈추게 할 수 있을까?

기타 등등 그 외 다수.